

불자 세상보기



고진호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그간 교육계의 핵심쟁점이 되어 왔던 인성교육법이 7월 21일 시행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교육계 안팎의 여론이 뜨겁게 점화되고 있다. '인성'을 교육하는 문제를 법제화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회의론부터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긍정론에 이르기까지 여론은 다양하다. 물론 인성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회의론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 법제화란 국가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법제화는 교육의 특수 영역을 국가질서 속에 강제로 편입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성교육법 시행과 관련하여, 불교계의 경우보다 긍정론적 관점에서 그 기여방안을 찾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우리의 최근의 교육현실은 복잡계(complex system)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복잡계적 이론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창발 하는 모든 현상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그 보다는 다중다양한 이유와 결과들이 상호 착종(錯綜)을 통해서 마치 꼬비우스의 띠처럼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계 이론은 혼돈(chaos)의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교육현실을 설명하고 있지만, 불교의 교리와도 상당 부분 일치점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잡계 이론은 불교와 교육 그리고 현실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해줄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불교계가 제안해야 하는 인성교육이론 모델은 이러한 복잡계 이론으로부터 그 구성의 체계를 시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인성교육이론 모델은 불교의 교리와 교육적 일반 논리 그리고 우리가 처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불교계의 인성교육이론 모델은 불교의 교리에 기반을 두지 만 일반 학교와 같은 공교육의 현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 내용성을 갖춘 것이

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성교육 모델을 완성하려면, 종래 불교계가 진행해왔던 인성교육의 방식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불교계는 그동안 청소년 범죄나 수련회, 사찰순례 혹은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적지 않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그리고 불교계가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교육적 기여와 사회적 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불교계 학교나 사찰 등이 이번 인성교육 법제화를 계기로 실질적인 기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래의 접근방식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불교계가 시행해왔던 인성교육의 방식은 진리의 영역으로 학생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최고의 가르침으로서 종교(宗敎)의 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종교의 관점에서 교육을 이끄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인성교육법 시행을 통해서 제기된 인성교육의 방향은 법의 시행취지 자체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목적과 특징을 지닌다. 세속적이라 함은 먼저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야 할 학생의 품성을 육성하고, 교육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볼 때 새로운 불교계가 제안해야 할 새로운 인성교육의 모델은 세속적인 영역인 교육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리에 학생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계 이론은 불교의 화엄장(華嚴藏)의 사유체계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략이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학생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심어 주겠다는 바람, 단선적 인과론에 입각한 논리적 설명방식이나 교훈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교계의 인성교육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타인과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돕고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데, 이익과 행복을 얻는 첩경이라는 것을 자각토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불교계 인성교육의 모델은 학생들이 체험하는 현실과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자각과 실천적 동기부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社說

불교방송 신임 사장에게 거는 기대

BBS불교방송 9대 사장에 前 보도국장 출신인 선상신 씨가 선임됐다. 7월 22일 서울 가든호텔서 열린 92차 이사회에서 선 후보자는 21명 이사 가운데 13표를 얻어 신임 사장에 당선됐다. 선출 직후 선 사장 내정자는 불교방송 개국 당시의 벅찬 감동을 재현하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그는 공채 1기 출신으로 대기업에 다니다 불교방송에 입사했다. 내부 공채 출신이 불교방송 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창사 25년만에 처음이다.

그래서 방송국 내부 직원들이 선 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 얼마 전까지 함께 동고동락 했던 동료였기 때문이다. 당선 기쁨도 잠시 선사장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불교방송은 갈수록 어려워진 방송 미디어 환경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급감하는 라디오 광고 수익이다. 여기에 뿌리깊게 박

힌 구성원들의 갈등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회사의 미래에 비전을 느끼지 못한 젊은 인재들의 이탈도 막아야 한다.

이런 어려움들을 선 사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끌며 해결해야 한다. 직원이 이견을 드러내고 갈등이 노정되면 희망이 없다는 그의 말처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수익 모델을 창출해 경영의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 다양한 포교 방송 콘텐츠도 양산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 사장이 25년전 공채 1기로 뿔뿔했을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방송은 우리 한국 불교계에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전파포교매체이다. 그가 내세운 '부처님 사상을 전 세계에 전하고 세상을 맑게 하는 글로벌 미디어'란 비전이 임기 동안 잘 펼쳐져 다시한번 불교방송에 활력이 넘칠지 기대한다.

조계종, 중점 과제에 힘을 쏟아야

조계종은 7월 21일 비공개로 '불기 2559(2015)년도 제34대 중점 정책과제 보고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공유했다고 알려졌다. 상반기를 살펴보면 조계종은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기획실이 총평을 통해 살핀 주요 성과를 보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세계평화기원대회, 해외구호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이 있다. 반면, 현 집행부 중점 과제인 중앙·교구 균형 발전, 총본산성역화 사업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중단 운영에 사부대중 의견을 반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에서도 대중공사는 긍정적인 분수령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하반기 '불교사회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더욱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총본산 성역화 사업

과 중앙·교구 균형 발전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상반기에 굵직한 행사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 사업들이 등안시 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실제 보고회에서 세계 대회 당시 중무원 차출로 빛은 업무 공백 등도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브리핑을 통해 밝힌 대로 총본산성역화 사업은 예산 확보와 사용에 대해 관련 기관과 합의가 이뤄진 상태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지 바란다. 또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공약이었던 중앙·교구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도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 중 계획한 이나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하반기로 계획된 승가 청구 제정도 관심을 모은다. 이미 교육원에서 새로운 청구 제정에 대한 토론회를 한터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쇤신위원회에서 성안한 승가청구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대로 된 청구를 만들어 종도들이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발언대

불교통일선언 과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7월 2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여성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5 불교통일선언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에 주요 참가자들의 발제와 토론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진정한 마음의 통일 필요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통일을 해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는 계속 분열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동질성 회복'만 강조할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질성 공존'을 통한 민족 통합을 꾀하는 새로운 통일 노력이다.

새로운 통일의 노력에는 '마음의 통일'을 위한 불교계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분단 70년 세월동안 사고방식, 지식, 정서 등 많은 것이 이질화 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음의 통일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이며 시급한 과제들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불교계에 구체적 실천방법 몇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통일 후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의지처에 공백이 생긴다. 이 부분이 바로 종교의 영역이다. 의지처를 잃은 북한 주민들에게 의지처를 마련해 줘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당장 북한 주민의 종교적 견해와 태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인도적 원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불교 가르침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수 있을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독자적 교류 사업 이뤄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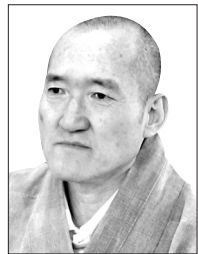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통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서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며 반복한 지 어느덧 70년이 됐다. 분단체제의 공고화와 분단구조의 재생산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이질화를 심화시켰다. 특히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준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은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5·24조치 등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남북교류 전면 중단해 왔다. 이에 따라 불교교류협력 뿐 아니라 지자체, 시민단체 등 대북지원도 중앙정부 통제 하에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즉 정부는 대북교류를 지자체·종교 및 시민단체 자율에 맡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교계 차원에서도 독자적 교류협력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지원과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시행해야 한다. 또한 불교문화유적 공동발굴과 보존사업, 평양에 불교문화원과 의료원 및 한의대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족진통종교로서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교계 차원 통일기금마련이 시급하다.

선언의 실천력 요구된다



범승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2015불교통일선언 발표 자체가 이미 성과다. 그러나 선언이 의도한 바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천에 대한 의지와 행정력이 관건이다. 이는 전적으로 종단의 몫이다. 한 반도통일선언 주체는 분단인과의 종결, 70년 세월의 중압감,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 그리고 국제문제의 해법까지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선언에 창조성과 현실감, 미래지향성이 결여된 아쉬운 점이 있다.

선언문은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공존, 상생, 합심'에 의한 통일론을 펴고 있다. 이는 남북은 물론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덕목임에는 틀림없으나 보다 심층·광폭적인 구현방법과 내용이 제기되어야 한다. 이밖에 화쟁사상을 통일문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성이 읽히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 '호국'을 거론한 점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 선언문이 전쟁 예방과 평화통일을 염두에 두고 '호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과 달리 '호국불교'는 대부분 전쟁과정이나 전쟁 이후 역사적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편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배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배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